

보컬 하모니 구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노래 ‘사랑비’를 중심으로-

이혜림*,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lovemusic85@hanmail.net
entheos@chungwoon.ac.kr

Study on the effect of vocal harmony composition -Focused on the song “Rain of Love”-

Hye-Rim Lee,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대중음악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실제 악기들을 사용하여 곡을 더욱 세련되게 완성시킨다. 보컬이 포함된 많은 대중음악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 보컬 코러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법과 소리로 연주되는 보컬 코러스를 연구함으로써 곡에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주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콜 앤 리스폰스, 옥타브 더블링, 화음, 패드를 이용하여 연주함으로써 곡의 악기 편성을 줄일 수 있고 사람의 목소리는 악기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메인 보컬과 더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메인 보컬이 가창한 멜로디에 힘을 실어주고 곡의 사운드를 풍성하게 만들어 줌을 알 수 있었다. 보컬 하모니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곡을 더욱 멋지게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서론

2. 본론

대중음악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써 인간과 함께 발맞추어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퓨전(Fusion), 하이브리드(Hybrid), 컨버전스(Convergence) 등의 용어를 가지고 있는[1] 문화 결합 현상[2]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와는 다르게 꾸준히 지속되어 발전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보컬 하모니(Vocal Harmony)’가 있다. 보컬 하모니란 가수를 뜻하는 보컬(Vocal)과 음악 구성 요소의 하나로 멜로디를 감싸서 전체적인 조화감을 형성하는 코드 및 그 연결[3]을 뜻하는 하모니(Harmony)의 합성어로 가창자의 메인 멜로디를 감싸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태우의 ‘사랑비’에서 나오는 보컬 하모니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김태우’ 또는 ‘사랑비’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연구하고자 하는 곡에서 보컬하모니의 다양한 기법이 활용

코러스는 사람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연주법을 이용해 다양한 악기를 대신 연주함으로써 곡의 악기 편성을 간소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메인 보컬의 소리와 가장 비슷한 질감으로 감싸주면서 더욱 풍성하고 단단한 소리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김태우의 ‘사랑비’에서 나오는 코러스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악보에서는 편의상 전주의 부분을 생략하였고 가사가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원곡의 악보와는 다름을 미리 알리는 바이다.

2.1 콜 앤 리스폰스(Call And Response)



[악보 1] 사랑비 A'파트

콜 앤 리스폰스(call and response)란 메인 보컬과 코러스 보컬, 그 외의 악기 등이 상호로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4]

위의 [악보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8마디에서 9마디 사이에 'Love'라는 가사의 코러스가 추가된다. 'Love'라는 가사를 메인 보컬의 선 연주와 화답하는 연주를 해줌으로 브라스를 대신할 수 있고, 메인 보컬과 더욱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느낌을 준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악기 편성 변경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악보 2] 사랑비 Pre-Chorus 일부분

[악보 2]의 22마디 주선율을 선창으로 23마디부터는 다른 멜로디를 삽입하면서 메인 보컬의 뒤를 따라가는데 새로운 멜로디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악기들과 멜로디를 똑같이 연주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2.2 유니즌



[악보 3] 사랑비 Chorus

[악보 3]에서는 메인 멜로디와 코러스가 같은 가사로 기본적인 메인 멜로디를 옥타브 아래로 연주하고 그 위에 화음을 쌓으며 같이 연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옥타브이지만 같은 음으로 연주하는 것을 '유니즌'이라고 한다. 다른 음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아닌 벗어나지 않는 같은 음으로 연주함으로써 메인 멜로디가 훨씬 풍성하게 들리는 효과를 주었다.

2.3 패드 (Pad)



[악보 4] 사랑비 Chorus 엔딩 1

패드(Pad)는 본래 신디사이저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음색인데 보컬에서는 부드럽게 연주하는 음으로, 전체적인 앙상블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모두 가리키는 용어이다.[5]

[악보 4]에서는 메인 멜로디의 연주 흐름에 따라 모음인 '우'로 패드를 깔아주면서 메인 멜로디와 함께 연주하고 있다. 스트링 연주를 대신하면서 악기 편성을 축소시키고 메인 보컬을 감싸주면서 더욱 자연스러운 연주를 하고 있다.



[악보 5] 사랑비 Chorus 엔딩 2

[5] ‘패드’,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편집부, 2002년

[악보 5]는 1절 코러스의 엔딩 부분으로 메인 멜로디 연주에 맞춰 화음을 쌓아 모음 발음으로 연주하였는데 곡 제작의 단계 중 하나인 믹싱 단계에서 기계적인 소리를 섞어 목소리를 약기화시켰다. 기계적인 소리는 곡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곡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 주었다.

3. 결 론

보컬 하모니의 적절한 사용은 하나의 곡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곡의 사운드가 더욱 풍성하게 느껴져 듣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더해가며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김태우의 ‘사랑비’에서 사용된 보컬 하모니 기법의 빈도는 유니즌, 패드, 콜 앤 리스폰스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메인 보컬과 악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악기가 연주할 수 없는 영역을 채워주기도 하고 메인 멜로디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으며 보컬과 악기 사이의 연결을 보다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주었다.

사람의 목소리는 다른 악기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질감을 바꾸기도 하며, 공기의 사용, 말투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훌륭한 악기가 되기도 하며, 반대로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보컬 하모니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곡을 더욱 멋지게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 [1] 이현영, 『콘셉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년
- [2] 각기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결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3] ‘하모니’,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편집부, 2002년
- [4] ‘콜 앤드 리스폰스’,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편집부, 2002년